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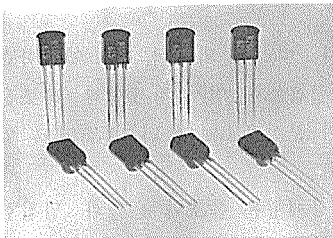
신제품소개

초소형 디지털 트랜지스터

□ 삼성반도체통신(주)
Tel : 771-78

삼성반도체통신(사장: 강진구)은 8월 20일 초소형, 고성능의 디지털 트랜지스터(Digital Transistor) 20여종을 자체 개발하여 부천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양산함으로써 VTR제품 등 모든 전자기기의 초소형화, 경량화, 디지털화 추세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同社가 이번에 양산하게 된 디지털 트랜지스터는 칩내에 표준저항(BIAS 저항)을 내장시켜 원 칩화(One chip)한 것으로 기존의 트랜지스터보다 크기가 대폭 축소되고 회로기판 구성이 간소화되어 VTR, 오디오, 비디오 제품 등 모든 전자기기의 소형, 경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현재 시장추세 또한 디지털화함에 따라 점차 그 수요가 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명「저항 내장 트랜지스터」라고도 불리는 디지털 트랜지스터는 同社가 이미 양산하고 있는 SOT 23, TO 92 패키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SOT 23 패키지는 기존 제품에 비해 크기와 부피가 대폭 줄어들어 제품의 소형, 경량화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카메라 일체형 VTR, 캠코더

□ 三星電子(株)

TEL : 751-6066

삼성전자가 일본에 이어 개발한 VHS-C 방식 캠코더(Camera+Recorder의 합성어)는 8mm VTR에 대응, 일본 빅터사가 올 3월부터 시판한 것으로 일본, 미국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있는 첨단 VTR이다.

VHS-C 방식 캠코더는

- 무게 1.3kg의 소형 경량으로 야외에서 휴대용 VTR로 현장에서 촬영·재생을 할 수 있다.
- 별도의 전환·편집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VHS-C 테이프를 아답터에 넣어 일반 가정용 VHS 방식 VTR로 촬영 내용을 볼 수 있다.
- TV방송의 녹화·재생도 가능하는 등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VHS 방식과 호환성을 갖는 것이 큰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장점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이 VTR을 88올림픽 및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VTR은 야외에서 60분간 녹화재생이 가능하고 초점·색상 등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또 15룩스 정도의 밝기에서도 작동되는 고감도 촬상관 채용, 원하는 장면을 빨리 찾아보는 픽쳐 서치, 6배 줌 렌즈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電磁式 균열 탐지장치

□ Ardrex Ltd.

Furlong Road, Bourne End, Buckinghamshire, England SL8 5AX

Tel : Bourne End(+446285) 24951

Telex : 848624

불규칙한 형상의 철금속계 부품의 결합 또는 내부 균열을 현장에서 즉시 감지, 檢出할 수 있는 경량의 電磁石 장치가 새로 개발되었다.

BCI 833 Electromagnet로 불리는 이 감지 장치에는 다리부분이 연결되어 광범위한 磁化度の 조절, 특히 극도로 형상이 불규칙한 부품의 磁性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 고도의 설계기술을 활용하여 경량화 시킴으로써 작업자의 피로도가 극소화 되도록 했으며 접근이 매우 어려운 위치의 시험도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240V 및 110V의 교류전원, 12V의 직류전원 등 다양한 공급전원에 적용되도록 현재 3종의 모델이 상품화되어 있다. 크기가 310×285×110mm인 운반케이스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무게는 3.5kg에 불과하다.

이 장치를 응용할 때 兩極사이의 최대거리는 273mm에 달하며 多濕조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밀봉 특성을 유지한다. 장치의 규격 및 성능은 美國 및 英國의 규격을 만족하며 철구조물, 용접물, 해양구조물, 파이프 이용분야에 매우 적합하다.